

제머나이소프트

글로벌 우수 성과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디지털 미디어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제머나이소프트가 2019년 정보통신방송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글로벌 우수 성과 창출 기업으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관상 수상 후 기념촬영 중인 강진욱 제머나이소프트 대표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매년 과기정통부 재정 지원을 통해 창출된 사업 성과 중 산업 발전에 기여한 민간 기업과 관계자를 시상, 격려하고 있다. 3회째인 2019년, 제머나이소프트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추진한 개발도상국 방송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해 에티오피아와 파키스탄의 방송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방송기술의 국제적 기반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머나이소프트는 에티오피아 교육부 교육방송센터(Center for Educational ICT, CEICT)에 제머나이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제작(NPS) 솔루션인 ‘프록시마(Proxima)’와 송출 솔루션을 공급, e-러닝 교육방송의 제작과 자동 송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에티오피아 현지의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했다. 에티오피아에 공급된 제머나이소프트의 프록시마는, 분할 트랜스코딩 기술을 적용해 UHD 트랜스코딩 속도를 최대 6배속까지 구현할 수 있는 제품으로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 이 솔루션은 설치와 관리가 간편해 미디어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이 필요한 방송국은 물론,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서도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파키스탄의 국영 방송 자회사인 라디오 파키스탄 물탄에는 EBS가 개발한 라디오 방송 전문 솔루션인 ‘이모션(emotion)’을 공급, 네트워크 기반 오디오 파일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청취율 고취와 정보 제공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안정적인 FM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한 시스템 및 제작 환경을 구축했다.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통관이나 사용자 교육 등 개발도상국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협업하는 ICT 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강소기업의 선진화된 방송통신 기술을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머나이소프트는 이번 에티오피아와 파키스탄 외에도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베트남개발센터를 거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브이네스트

추가전원이 필요한 전문가용 PCIe 카드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3 외장 케이스, Echo Express SE IIIe 출시



Sonnet Technologies 한국 총판인 ㈜디브이네스트는 3개의 PCIe 카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EchoExpress SE IIIe 썬더볼트 3 외장새시를 출시했다. EchoExpress SE IIIe는 EchoExpress SE III의 후속 모델로써 추가 전원이 필요한 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15W의 6핀 전원 커넥터가 추가되었다.



- ① 총 3개의 PCIe 슬롯 제공
- ② 6핀의 보조전원 제공

AJA Corvid 44 12G, Corvid HEVC, Kona5, DeckLink 4K Extreme 12G, Bluefish444 K ronon elektron과 같은 전문 영상 캡처 카드의 경우 PCIe 슬롯을 통해서 공급되는 전원 외에도 추가로 6 pin 단자를 통해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썬더볼트용 외장 새시는 일반인들보다는 전문가들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 특징

- 썬더볼트 3 포트가 있는 Mac 또는 윈도우 PC에서 고성능 PCIe 카드 사용
- 3개의 PCIe 8배속 슬롯을 제공하여 최대 3개의 PCIe 보드 장착 가능
- 40Gbps 썬더볼트 3 인터페이스
-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완벽한 성능 구현
- 2개의 썬더볼트 3 포트 제공으로 최대 5개의 썬더볼트 3 장치를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 가능
- 온도 조절이 가능한 가변 쿨링 팬을 사용하여 저소음 구현
- 컴퓨터 전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꺼지거나 켜지는 절전모드
-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 썬더볼트 케이블 및 썬더볼트 케이블이 실수로 분리되지 않도록 썬더락 고정클립 제공

가격(VAT 포함) Echo Express SE IIIe : 867,000원

문의 : 1544-5596, 디브이네스트 www.dvnest.com

고일

Leitz Prime 풀세트 체험 가능한 세미나 개최



고일이 지난 12월 9일 삼청동 블루스퀘어에서 Leitz Prime 풀세트를 경험해볼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eitz Prime 및 Leitz Zoom 렌즈에 대한 소개와 관련 실내외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제조사별 ALEXA Mini LF, RED Monstro 및 Sony Venice에 마운트하여 직접 테스트 할 수 있었다.

Leitz Prime 및 Leitz Zoom 렌즈는 같은 색상을 표현하며, Breathing의 최소화, 높은 선예도, 왜곡이 매우 적고, 색수차가 보이지 않는 특징이 매력적인 시네 렌즈이다. Leica Thalia 렌즈가 60mm 지름의 이미지 서클을 지원하며, Summilux-C가 34.5mm, Summicron-C가 36mm, M 0.8 렌즈가 44mm, Leica Prime, Zoom 렌즈는 46.5mm의 이미지 서클을 지원한다. 렌즈의 초점거리는 18, 21, 25, 29, 35, 40, 50, 65, 75, 100, 135, 180mm가 있으며, Leitz Zoom은 T2.8 25-75와 55-125를 지원한다.



전시된 Leitz Prime 및 Leitz Zoom 렌즈



RED Monstro에 마운트된 18mm Leitz Prime 렌즈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UHD 표준동영상 제작결과 발표회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KBS 방송장비인증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UHD 표준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 발표회가 지난 12월 23일 KBS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발표회는 방송장비업체에서 제품개발이나 데모, 전시에 사용할 UHD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간 업체에서는 저작권으로 비싼 동영상을 구매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의 낮은 품질의 영상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UHD 표준동영상 제작으로 이를 국산방송장비제작 업체에서 공유하여, 제품 개발이나 NAB, IBC, KOBA와 같은 전시회에서 제품을 전시할 시에도 높은 품질의 영상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길이 열린 것이다.

국산방송장비 개발과 홍보, 수출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발표회에는 KBS 기술진과 비데트, 디에스브로드캐스트, 에이티비스 등 14곳의 국산방송장비 업체에서 참여하여 동영상 제작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영상 제작은 KBS 영상제작국과 후반제작부, 시스템구축부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 촬영 카메라는 RED Monstro 8K VV 모델로 8K 포맷으로 촬영하였으며, 레코딩은 REDCODE RAW로 저장되었고, 렌즈는 Zeiss Supreme Prime으로 25-100mm가 사용되었다. 촬영된 8K 영상을 UHD(3840×2160)로 다운시켜 제작하였으며, ITU-R BT.2100 권고안을 준수하여 HDR 마스터링 작업을 시행하였다. 영상은 UHD 해상도에서 SDR과 HDR 2종류로 구성되었고 각 동영상은 No.1 ~ No.10의 번호와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1초간의 타이틀 화면과 그 뒤에 이어지는 20초간의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마케팅용으로 HDR 버전의 5분 길이의 영상도 같이 제작되었다. 발표회장에서는 77인치 LG OLED TV에서 영상의 시연 및 검토가 진행되었다.

해상도	4K(SDR, HDR)
화소사이즈	3840×2160
프레임주파수	59.94(순차주사)
샘플링 비	RGB 4:4:4
비트수	각색신호 12비트
양자화	ITU-R BT.2020
표색계	ITU-R BT.2020
파일포맷	DPX(Digital Picture Exchange) 형식

UHD 표준동영상 영상 포맷

모델명	Transcoder 2019
입력포맷	Prores, DPX, TIFF
출력포맷	Prores, DPX, TIFF, HEVC, H.264
색역	BT709, DCI-P3, P3-D65, BT2020, ACES
해상도	2K, 4K, 8K
지원파일포맷	Prores, R3D, DPX
HDR 종류	HDR10, HLG

HDR 마스터링 사양

발표회는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변철호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팀장의 사업 취지와 과정 설명에 이어 김승준 KBS 제작기술센터 감독의 후반제작에 대한 설명 후 동영상에 관한 후기를 신수근 비덴트 전무와 장현식 디에스브로드캐스트 이사에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신수근 전무는 “좋은 기회로 UHD 영상을 제작한 KBS에 감사를 드리며, 전시장에서 관람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영상이 중요한데, 앞으로 높은 품질의 영상으로 다른 부스와 구분되는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영상 제작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고, 장현식 이사는 “장비 데모에 사용할 동영상을 높은 금액을 지불하며 저작권으로 1년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KBS에서 무료로 사용할 영상을 보급한다는 소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박시혜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은 “앞으로도 국산방송장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기재부 등에서 방송 관련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2020년 제주에 방송장비를 증축하고, 국산장비의 해외 진출에도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국산방송장비업체가 더욱 힘써주길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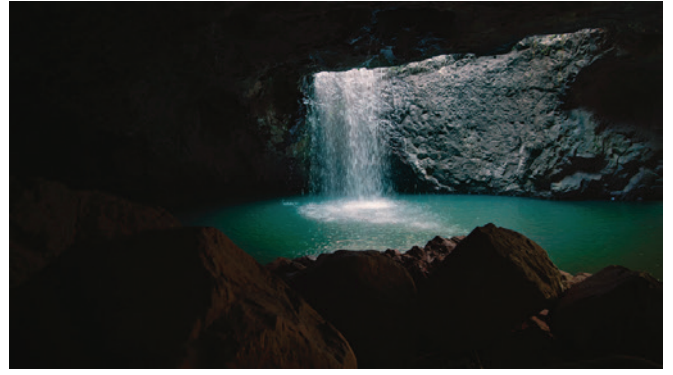
발표회의 마지막에는 Q&A가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으로는 이번 표준동영상과 같이 동영상제작이 진행된다면,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루었는데, ‘120프레임의 영상, 다양한 압축 코덱 사용, 페이드 인/아웃 영상, 국방이나 K-POP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강한 주제’를 영상으로 표현해주었으면 했으며, 김승준 감독은 “K-POP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한류스타의 초상권 문제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영상은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안성 팜랜드, 경복궁, 호주 스프링부룩 국립공원 등의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되었다. 정적인 영상과 동적인 영상, 색 표현력 등을 위해 움직이는 전동차, 물의 반사, 단청, 파도, 도로 등 장소와 상황, 오브젝트를 달리



UHD 표준동영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던 Q&A 시간





UHD 표준동영상 HDR 클립 캡처 이미지

하였다. 이렇게 촬영된 표준동영상은 SDR과 HDR로 나뉘어 정지해상도, 동해상도, 계조, 색조, 디지털 처리에 의한 열화, 임장감, 광색역이라는 8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산을 배경으로 호수의 일렁이는 잔물결을 고정샷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산의 암부 재현성과 계조를 유용하게 평가할 수 있고, 잔물결은 디지털 부호화 처리에 의한 노이즈를 검출하는데 적합한 영상으로 평가되었다.

정지해상도	· 휘도해상도	· 색조 해상도
동해상도	· 모션 블러(Motion Blur)	
계조	· 감마특성 · 블랙재현성(암부손실)	· 명부/암부의 디테일 · 화이트재현성(명부손실)
색조	· 색 재현성 · 색온도(White Balance)	· 색 번짐
디지털처리에 의한 열화	· 모스키토 이펙트 · 블록노이즈 · 할로(Halo)	· 양자화 노이즈 · 링킹(Ringing) · 앨리어싱(Aliasing) 노이즈
움직임 적응 처리	· 움직임 검출	· 움직임 보상
임장감	· 실물감(질감 표현)	· 몰입감
광색역	· 표색계의 비교	· 색재현, 색역 변환

UHD 표준동영상 평가항목

소니코리아

플래그십 XDCAM 솔더 캠코더 PXW-Z750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는 플래그십 XDCAM 솔더 캠코더 PXW-Z750을 선보인다. PXW-Z750은 4K 글로벌 셔터 3 CMOS 센서를 탑재한 첫 2/3인치 타입 솔더 캠코더로 뉴스, 스포츠 중계, 다큐멘터리 촬영을 포함한 라이브 프로덕션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PXW-Z750은 소니의 뛰어난 3칩 CMOS 이미지 센서와 프리즘 블록을 통해 디테일한 이미지와 생생한 색 재현력을 자랑한다. 낮은 노이즈와 뛰어난 감도로 4K, HDR은 물론 HD HFR 촬영까지 가능하다. 또한 2/3인치 타입 센서가 탑재돼 깊은 피사계 심도와 빠른 포커싱을 경험할 수 있다.

PXW-Z750의 글로벌 셔터 기능은 플래시밴드(Flash band) 또는 롤링셔터 현상(Rolling shutter image distortion)과 같은 이미지 왜곡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결과물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기자 회견과 같이 조명을 조절하기 힘든 환경에서의 촬영이나 스포츠, 라이브 이벤트, 자연물 촬영 등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데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 최대 120fps의 HD HFR 지원으로 이미지 블러 및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고 4K 영상을 오버샘플링(oversampling)해 선명하고 노이즈가 적은 H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DR 영상 제작을 위한 최상의 유연성 제공

PXW-Z750은 HDR 영상 제작을 위한 극강의 기능을 제공한다. S-log3, HLG(Hybrid Log Gamma) 모드와 BT.2020 및 BT.709 컬러 스페이스를 지원하며, 4K HDR과 HD SDR 동시 녹화를 위한 4K HDR 솔루션 'SR Live for HDR'을 제공해 4K 및 HD 동시 방송 제작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4K 시퀀스와 HDR 영상 촬영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코딩 알고리즘을 통해 저용량으로 고품질 영상을 구현하는 XAVC-L (Long-GOP) QFHD 10비트 4:2:2 포맷으로 녹화가 가능하다. 4K 60P 이미지를 200Mbps 크기로 녹화해, 4K 제작 포맷으로 널리 사용되는 XAVC-I Class 300 포맷 대비 1/3 크기에서 최상의 4K 품질과 해상도,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본으로 장착된 12G-SDI 인터페이스를 통해 4K 60P 이미지를 단일 BNC 케이블만으로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 유연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소니 하드웨어 및 서비스와의 높은 호환성 구축

PXW-Z750은 사용자 필요와 편의, 예산 규모에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 및 옵션 제공으로 대용량 콘텐츠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BP-120F(120GB)와 SBP-240F(240GB)의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되는 소니의 최신 메모리 미디어인 SxS Pro X 카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10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로 하이 비트레이트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Thunderbolt 3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신형 메모리 리더/라이터 SBAC-T40를 통해 240GB 크기의 영상을 약 3.5분 내에 백업할 수 있다.

PXW-Z750은 B4 마운트 렌즈와도 호환이 가능해 여러 신규 및 기존 렌즈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B4 마운트 렌즈의 경우 다양한 심도를 지원하는 만큼 뉴스 또는 생방송 등 라이브 콘텐츠 촬영에 적합하다. 여러 종류의 뷰파인더 및 배터리와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하드웨어 외에도 내장 무선 네트워크 기능과 뉴스 프로덕션을 위한 소니의 클라우드 기반 워크플로우 서비스 XDCAM air를 지원해, 뉴스 등 생방송 제작 현장에서 원활한 실시간 스트리밍과 효율적인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다.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 관계자는 “소니의 새로운 플래그십 솔더 캠코더 PXW-Z750은 높은 이동성과 뛰어난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4K, HDR, HFR을 통한 최고의 시각적인 경험을 더했다. 4K 글로벌 셔터 이미지 센서와 강력한 4K 플랫폼을 탑재해, 단 하나의 캠코더로 제작자들의 여러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소니의 오디오, 미디어, 무선 워크플로우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면 보다 통합적인 솔루션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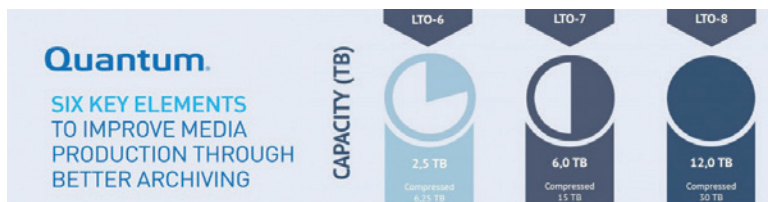
작년 IBC 2019에서 첫 공개된 PXW-Z750은 올해 2월 출시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홈페이지(pro.sony/ko_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퀀텀코리아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위한 고려 사항’ 발표

스케일아웃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보호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인 퀀텀코리아가 ‘성공적인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카메라 및 기타 미디어 장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스포츠 방송사, 프로덕션 기업, 영화 스튜디오 등 미디어 업계는 데이터 증가로 인한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요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확장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디지털 아카이브 생성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를 저비용 스토리지 계층으로 옮기는 것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

퀀텀코리아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을 위한 6가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앙집중식 공유 디지털 리포지토리(Repository, 정보 저장소)를 운영하라
-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축하라
-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이동시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라
- 안정적으로 데이터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성능을 비교 검토하라
-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아카이빙된 디지털 자산을 쉽게 액세스하고 활용하라
- 콘텐츠 재사용 및 라이선싱,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아카이빙 시스템의 가치를 극대화하라

중앙집중식 공유 디지털 리포지토리(Repository, 정보 저장소)를 운영하라

중앙집중식 공유 리포지토리를 운영하면 콘텐츠 원료, 전송, 방송된 모든 내용이 아카이브에 저장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카이브가 회사의 중앙 리포지토리 및 파일 메모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이기 때문에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기업 내 모든 데이터가 어떤 스토리지 계층에 저장되든지 관계없이 사용자는 데이터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썸네일 및 프록시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검색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적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웹 인터페이스도 필요하다.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축하라

아카이빙은 고가의 성능 최적화 스토리지에서 저가의 용량 최적화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기 때문에 파일을 보관하는 즉시, 로컬에서 사용하는 편집용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고가의 프로덕션 스토리지를 재사용할 수 있다. 아카이빙은 오랜 시간 보관해야 하는 블록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이동시킨다. LTO 테이프에 데이터를 보관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된 LTO-8 기술 기반 테이프 스토리지는 최대 12TB의 고용량의 기본 스토리지와 최대 30TB의 압축

스토리지(2.5:1 압축 비율)가 포함된 카트리지를 제공한다. LTO-8 테이프 미디어는 최대 360MB/초의 데이터 전송 속도(압축 데이터로는 900MB/초, FH Drive 기준)를 제공하여 최저 비용으로 최적의 고성능 아카이빙 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이동시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라

최첨단 제작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업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겠지만, IT 부서들은 운영 측면에서 예산에 대한 큰 압박을 받는다. 이에 IT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 디스크, 테이프, 클라우드 등이 혼재된 스토리지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간편하게 이동시키고, 편집 작업용 워크스테이션과 데스크톱에서부터 저장을 위한 아카이브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자는 제작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동시에 로컬 스토리지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으로 데이터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성능을 비교 검토하라

중요한 재무 정보, 스포츠 장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그 무엇을 저장하든 아카이빙은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과 30년 이상의 저장 수명(shelf life)을 고려할 때, LTO 테이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이다. 또한, 최저 전력의 풋프린트와 최소의 냉각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운영비 측면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스토리지 대안 중 하나이다. 데이터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테이프 복제는 보조 테이프 세트를 통해 고성능 보안 기술 및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오프사이트 스토리지를 제공하여 최적의 안전을 보장한다. 테이프가 제공하는 에어 갭(air gap)은 멀웨어, 랜섬웨어, 기타 침입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제 아카이빙 스토리지 도입 시에는 오랜 기간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며,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한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아카이빙된 디지털 자산을 쉽게 액세스하고 활용하라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재설정, 고객 재구매, 히스토리 컨텍스트 등과의 관련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액세스가 용이해야 한다. 기존 직원은 물론, 자료를 찾고 복원하는 업무와는 무관한 미래의 직원들에게도 데이터 액세스가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콘텐츠 및 제작 조건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빠른 데이터 확인을 위해 개별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가능한 메타데이터 필드 및 메뉴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정한 클립 및 파일을 필터링하는 옵션도 활용할 수 있다면 좋다.

콘텐츠 재사용 및 라이선싱,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아카이빙 시스템의 가치를 극대화하라

조직의 클립, 이미지, 파일이 결합된 풀(pool)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 수익의 소스가 될 수 있다. 콘텐츠를 재사용, 재설정, 라이선싱, 참고할 때 새로운 매출 흐름이 발생될 수 있다. 재구매 고객이나 신규 고객의 경우, 이전 제작물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작물은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하거나 해당 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특정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상 클립에 라이선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업계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따라, 이전 제작물의 복원은 서비스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는 최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아카이브의 잠재력을 잠깐 맛본 정도이며, 아카이브 전략을 구축하면 더 많은 이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특정 니즈에 맞는 최적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미디어 조직들은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주도하는 워크플로우를 보다 잘 이해하고 고객 및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요구사항을 미디어 아카이브 방식에 따라 조정하면 운영 방식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

퀀텀코리아의 이강욱 이사장은 “비즈니스의 스토리지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장 데이터의 가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최적의 아카이빙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궁극적으로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조직들은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최적화된 퀀텀 스토리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급 최고의 아카이빙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